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다윗의 동네 성경: 누가복음 2장 1-7절

Tag: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눅2:1-7)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다.

다윗의 조상들이 이곳에 살았고, 다윗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어의 뜻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 모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시리라는 예언 때문에, 다윗의 자손(단수)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한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인 이유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곳에서 태어난 이유는 그 조상들이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인데, 베들레헴에 살던 다윗의 조상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보아스다. 특히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서 얻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동네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정신에 대한 이야기

기를 해보자.

크리스마스 정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그 핵심 정신은 가족의 중요성이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에 이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문화가 전통문화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 핵심 문화는 유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적인 정신과 문화가 그 핵심이다.

특히 보아스 이야기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룯이 들어오면서 가족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구나 룯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고, 룯의 남편은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라,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이고, 나오미가 며느리 룯을 보아스에게 시집보냈다. 그러나 룯이 낳은 오벳은 나오미의 손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남은 인생을 쓸쓸하게 지내야 하는 나오미의 가정에 생기가 돌고 가족이 회복되었다.

룰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룯을 메시아의 가정으로 편입시킨 셈이다. 어쩌든 가족이 제일 소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회복된다는 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의 핵심이다.

미국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집을 떠난 가족이 있다면,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물론 요셉은 이런 이유로 베들레헬 고향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윗의 동네’는 가족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는 동네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한 핏줄인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

그보다는 모든 식구들이 서로 존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이다. 안타깝지만, 식구들끼리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누구는 누군가보다 더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가난해서 떠났다가 보다는, 가난은 핑계) 나보다 동생이 더 존귀함을 받는다고 느낄 때, 형은 동생을 미워한다. 형이 나보다

더 존귀함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동생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는다. 그러다가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다. 서운하게 했으니까 앙갚음을 한다. 그렇게 미움을 주고받으면서 집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곧 후회하게 된다.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이고, 서로는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겉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들이고, 실수가 많고, 속이 좁으며, 욕심쟁이에다, 이기적이며, 샘이 많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가족은 그 모든 나쁜것들을 녹여내는 사랑이 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모두 잊어버릴 수 있으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으로 회복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미 아내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고, 아기는 메시아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다. 요셉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마리아를 섬겼다. 요셉은 뱃속의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아기 예수를 사랑했으며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경제적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힘겨워하지 않았다. 모든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사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나쁜 소문이 돌 때 쫓 부랴부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간에서 마리아는 요셉의 아이를 가졌다는 인식을 얻는다. 또 베들레헴으로의 여행과 곧이어 애굽으로의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시기에 대한 억측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로서는 이런 여행을 내심 안심했을 것이다.

물론 이 전체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고, 이 가정을 보

호 하셨으며, 인도하셨고, 예비하셨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궁정이 아닌 마굿간이 보일 것이고, 산모의 힘겨운 여행이 보일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죽어간 아기들의 처참한 살해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들과 어미들의 영혼을 보살피셨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 가정들에게 더 없는 복을 해 주셨을 것이며, 그 가정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보상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 헤롯에게는 가감 없는 징벌을 하셨다. 징벌이 있었는데, 어찌 축복이 없겠는가?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와 생사회복과 심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그 내용의 다양성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정해진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한다. 혹자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보물 세가지가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라는 설도 있고, 성니콜라스(산타클로스)가 가난한 이웃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류에게 커다란 선물이다. 동방박사가 드린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니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

성탄절의 가장 큰 가치는 희생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렇고, 포인세티아 장식도 그렇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렇고, 베들레헴 어린이들의 죽음도 그렇고 성탄절의 가장 큰 가치는 희생이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다.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 집에

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기독교에서는 희생을 거룩하게 여긴다. 특히 가족을 위한 희생을 거룩하게 여긴다. 희생은 가족을 회복시킨다. 희생은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희생은 아깝지 않다. 마귀는 엄마에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한다. 그러나 엄마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는다. 희생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희생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요즘 희생을 억울한 것으로,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려는 자들이 있어 희생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희생이 거룩한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 세례요한 성경: 누가복음 1장 67-80절

Tag:

67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함;예언기도, 예언하며 선포함.
-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함이 일종의 약속이요, 명령이며, 계획이며, 방향지시이며, 사명선포이다.
- 사가랴가 믿음이 부족했을 때에는 그 입을 막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이 열렸을 때는 제대로 된 말을 함.
- 기도의 의미가 이렇다.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
-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가치가 드러난다.
-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한 대로 자란다.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 속량하시는 하나님
- 속량의 의미
- 회개와 깊이 연관됨. 세례요한의 임무가 회개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 기도는 영적 전쟁
-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72 우리 조상을 공홀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눅1:1-80)

-몸도 영도 자라기까지 광야에 있어야 한다.